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8. 11.(월)

김민석 국무총리, 「럼」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

- 무역, 투자, 전략산업 등 전방위 분야 협력 강화 논의 -
- 양국 진출 국민과 기업의 안전, 권익 지원 노력 -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방한 중인 「또 럼(To Lam)」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△양국 간 경제협력 △전략 분야 협력 △과학기술 협력 △문화·인적교류 △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민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,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-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-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, 양국 간 무역,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, AI, 바이오,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-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,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.

○ **럼 당서기장**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,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.

□ **김 총리**는 우리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고속 발전 중인 베트남과 원전, 고속철도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하고, 베트남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.

○ **럼 당서기장**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의 한국측의 참여를 환영하며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.

□ **양측**은 양국 방문 국민 500만 명 및 상호 체류 국민 50만 명 등 **활발한 인적교류**를 높이 평가하고, 양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양국 간 문화, 체육, 관광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**양측**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. 특히 **럼 당서기장**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대화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고 양국이 국제무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정재상	02-2100-2109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 임채영	02-2100-2132

